

건강 칼럼

자가 혈액 이용 'PRP 얼굴지방이식' ... 입체감 있는 동안 연출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노화를 겪게 된다. 피부는 물론 노화에서 예외인 신체 부위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얼굴은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핵심 부위로 나이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동안(童顏) 연출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이들도 많아졌다. 만약 볼륨감 없이 골격만 두드러진 인상을 가지고 있다면 실제 나보다 더 늙어 보이는 느낌을 준다. 이에 노화 콤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한 '얼굴지방이식' 등의 성형이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플래이스지방이식'이라고도 불리는 얼굴지방이식은 얼굴에 입체감을 줘 전반적으로 교정해 부드럽고 어려 보이는 동안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지방이식으로 볼륨이 생기면 얼굴이 커 보일까 걱정하는 환자들이 있지만 이마나 볼, 팔자주름 등 볼륨이 적어 폭 꺼져 보이는 부위에 적당한 볼륨을 채워 얼굴에 입체감이



이 윤 환

탈레이스성형외과 원장

살아나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얼굴형이 작아 보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지방이식 술기의 진화로 인해 자가혈을 함께 이식하는 PRP 지방이식이 선호되고 있다. PRP 지방이식은 오직 자신의 몸에서 추출한 지방과 혈액만을 이용해 시술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혈액에서 분리한 혈장을 일컫는 PRP를 활용하므로 보형물 삽입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환자들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시술이다.

자신의 혈액을 채취해 고농축혈소판을 분리한 후 지방을 주입하는 시술인 PRP지방이식은 혈소판에 함유된 자가 조직 치유 물질로 인

해 지방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콜라겐의 탄력섬유가 증가되기 때문에 지방의 생착률은 물론 손상되거나 노화된 피부를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동, 재배치, 주입으로 입체적인 볼륨 효과를 도출하는 PRP지방이식은 이동, 재배치, 주입을 통해 동안 얼굴을 만드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원심분리기를 통해 분리된 혈장에는 혈소판이 들어 있어 지방이식술 이후 생착률 향상과 피부 재생 효과를 부여한다.

또한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이끌어내는 지방세포 활성화에 따른 지방이식 효과 유지를 비롯해 콜라겐 탄력섬유 증가로 인한 노화피부 개선,

매끄러운 피부표면 및 탄력증대, 불필요한 지방을 추출하며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바디라인 교정 등의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PRP지방이식은 시술 받을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고 채혈한 혈액을 무균 원심분리기에 분리한 후 분리된 혈액에서 혈장과 혈소판만을 추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후 최종 분리된 혈소판과 혈장을 지방과 혼합해 원하는 부위의 진피층에 주입하게 된다.

다만 얼굴지방이식은 무조건 볼륨을 채워 넣는 것이 아닌 철저한 사전 검사와 디자인으로 개인에 맞는 맞춤형 시술을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충분한 상담을 통한 소통이 선행되는 가운데 섬세한 지방 채취와 첨단 장비 사용을 통한 시술이 이뤄져야 생착률과 사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플래이스 자가지방이식은 높은 난이도의 시술 중 하나로 지방이식전 후 사진이나 지방이식후기에 의존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풍부한 노하우와 임상경험을 지닌 전문 의료진을 중심으로 성형외과를 선택하는 것이 권장된다.

사설

코로나 침투 계속 경계해야 한다

코로나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 이탈리아나 미국이나 스페인이나 이런만점은 아니지만 한국도 곤란한 지경이다. 지속적으로 확진 환자가 늘어 9천 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리고 사망자도 늘어 111명에 이르렀다. 빨리 진정돼야 하는데 두렵고도 불안한 나날이다.

우리 전북에서는 군산에서 두 사람 전주에서 한 사람이 확진 환자로 드러났지만 가족과 조사 대상자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전북도와 관계 당국자들에게 거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도내 소규모 교회들의 동태에 민감하게 대처했으면 한다.

다들 알고있드시피 소규모 교회들 중에는 합쳐서 하는 이들이 있다. 매주 들어오는 헌금이 아니면 현상 유지가 어렵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현장 예배 쪽에 강한 유혹을 느끼고 있다. 최근들어 전국적으로 확진 환자가 늘고 있는데 소규모 교회 측의 비협조가 한몫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북도는 서울과 경기 쪽 교회들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것을 두고 심심히 여겨선 안된다.

전북도는 도내의 교회들에게 일요일 예배는 물론이고 다른 집회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당연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현장 예배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판소리를 내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거듭 말하지만 은혜의 강 교회나 생명수 교회 등 소규모 교회가 보여준 불행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대구 한마을 요양병원과 다른 요양 시설이 보여준 행태도 반면 교사의 사례로 삼아야 한다.

이 순간에도 대구 경북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확진 환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을 터이다. 확진 환자가 끊이지 않으면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될 터인데 앞으로가 걱정이다. 전북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지만 그래도 알 수 없는 게 내일의 일이다.

정은경 본부장의 보고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6명 중 21.9%인 14명이 해외에서 유입이 됐다. 도내에서도 미국을 다녀온 군산 시민이 신규 확진 환자로 드러난 적이 있다.

전북도와 방역 당국이 계속 긴장하고 경계해주었으면 하는 바다.

이루지 못한 지역 발전 현안 다시 추진해야

지역 발전은 도민 모두의 바람이다. 전북도는 뜻을 이루지 못한 현안에 다시 주목해야겠다.

지난해 턱걸이를 하되만 주요 현안들을 챙겨야 한다. 언제 쯤이나 제대로 추진될 것인지 답답하다. 코로나 19 때문에 긴장감이 높을 때이지만 그래도 추진할 것은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 확산 방지에 힘을 쏟는 중에도 할 일은 해야 한다는 당부이다. 전북도가 코로나 확산 방지에 전국적인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중에 지역 발전도 계속 도모하고 추진해주었으면 하는 기대이다.

전북 발전은 도민 모두의 열원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너와 내가 따로 없어야겠다. 다들 선공후사의 정신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게 없다면 지역 발전은 요원하다. 다시 말하거니와 지역 발전은 전북도만 이끌어 가는 게 아니다. 군산 경제 살리기 대책을 호소하는 것처럼 지역의 다른 현안에도 정부가 눈길을 돌리도록 해야겠다.

군산이 수년 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여기 다시 요구하거니와 군산 현대조선소 재기동이 속히 있어야겠다. 군산의 영세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나날이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이 요지부동이라서 조선소가 어렵다면 미련을 접어야 한다. 현대중공업 측에 대한 압박을 내던지고 전기자동차 생산을 서둘러야 한다. 2022년까지 미루지 말고 앞당기자는 것이다. 전기차 생산이 군산형 일자리로 정해졌다면 지체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

경제발전과 현안 추진이 항상 중심 주제가 돼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 지역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래서 실업자들이 다른 광역 시도보다 많다. 전북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지역의 현실을 폭 넓게 보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발전을 도모한다고 할 수가 없다.

도지사 및 각 시군의 단체장들은 때때마다 당부한대로 한차례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군산이 수년 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여기 다시 요구하거니와 군산 현대조선소 재기동이 속히 있어야겠다. 군산의 영세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나날이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이 요지부동이라서 조선소가 어렵다면 미련을 접어야 한다. 현대중공업 측에 대한 압박을 내던지고 전기자동차 생산을 서둘러야 한다. 2022년까지 미루지 말고 앞당기자는 것이다. 전기차 생산이 군산형 일자리로 정해졌다면 지체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

경제발전과 현안 추진이 항상 중심 주제가 돼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 지역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래서 실업자들이 다른 광역 시도보다 많다. 전북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지역의 현실을 폭 넓게 보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발전을 도모한다고 할 수가 없다.

도지사 및 각 시군의 단체장들은 때때마다 당부한대로 한차례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이번엔 지진” ... 불안한 크로아티아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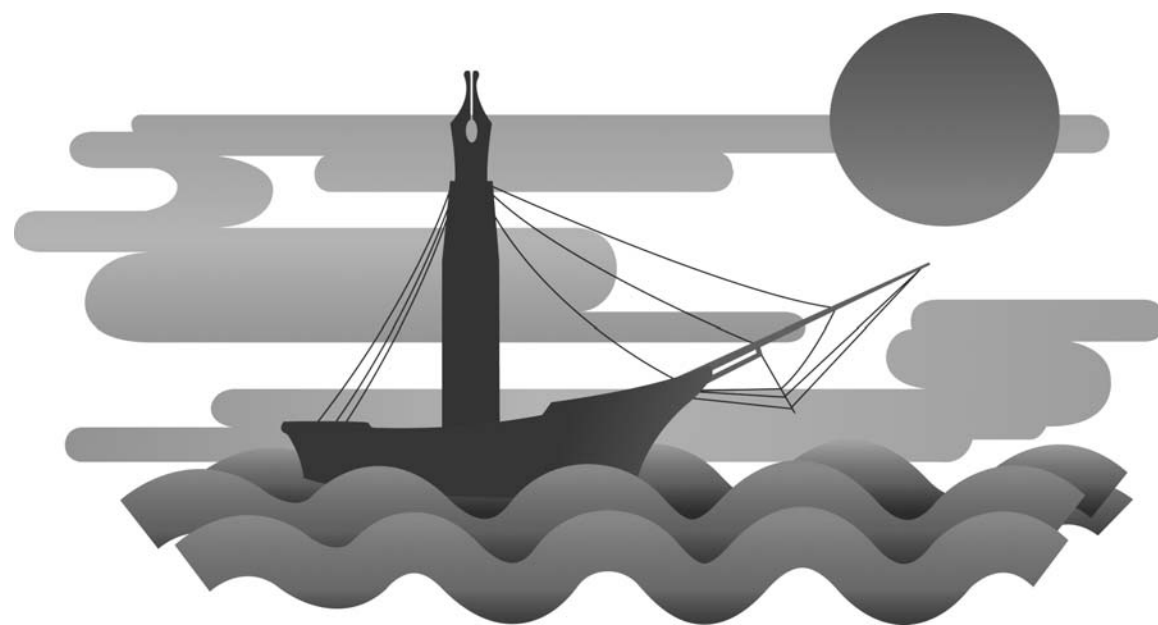


크로아티아에서 22일(현지시간)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해 수도 자그레브에서 시민들이 공영으로 대피해 쉬고 있다.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는 140년 만에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으로 17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코스트코 입장 기다리는 영국 사람들



2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남부 크로이던의 코스트코 밖에서 시민들이 입장을 위해 줄 서 기다리고 있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에게 사회적 거리 두기와 불필요한 이동을 삼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